



9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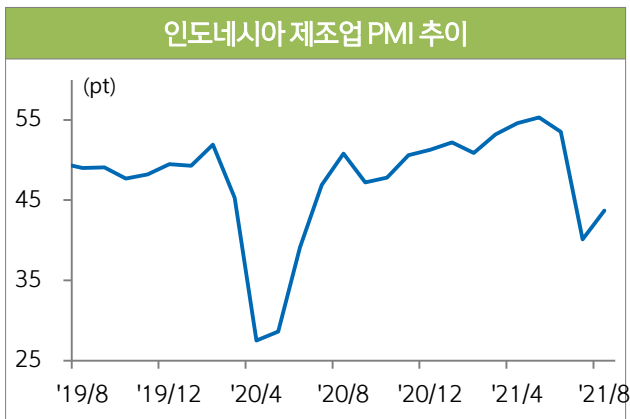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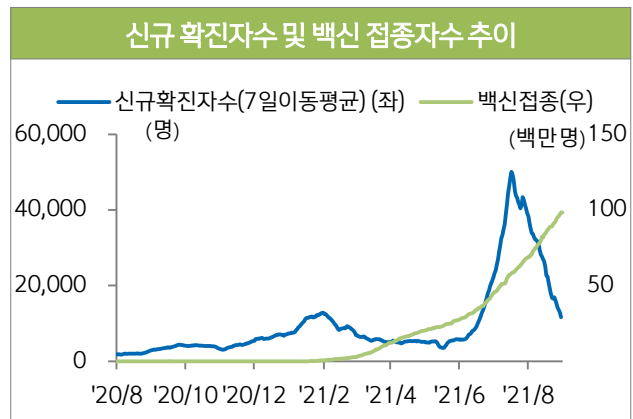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8월 제조업 PMI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부진. 코로나는 벗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피크아웃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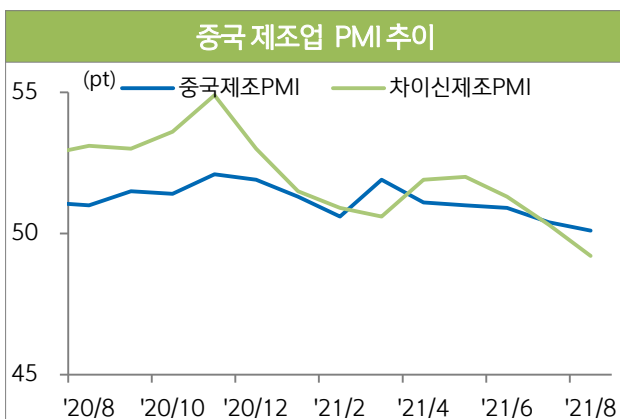
- 8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43.7pt를 기록하여 전월 40.1pt에서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50pt를 하회하면서 **위축된 흐름을 보였음**. 8월 글로벌 제조업 PMI가 54.1pt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흐름은 유지하였지만 7월의 55.4pt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2달 연속 하락을 기록하는 등 확장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8월에도 델타변이의 영향이 아시아권에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제조업 투자 심리를 제한하였음
- 8월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이 제조업 PMI 부진이 지속된 주요 원인이었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사교육 규제 등 8월 중 지속적인 규제 발표가 이어지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 되었고 그 영향으로 8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49.2pt로 하락하였음. 중국 차이신 PMI가 50을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한 이후 확장세를 보였던 중국 경기가 피크아웃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중국의 수출입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수입 둔화는 코로나19 와중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로도 연결되는 상황**
- 인도네시아 델타 변이의 확산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에서의 델타 변이와 이로 인한 항만 운영 통제 등이 전반적인 교역량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주요국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는 아시아권 델타변이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한 항만 운영 정상화를 통해 교역이 개선된다면 찾아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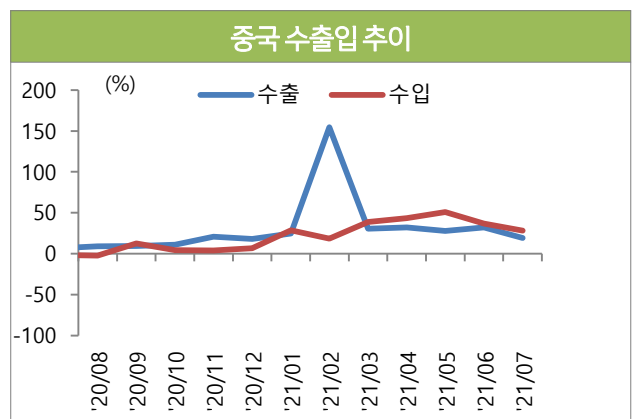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93	8.2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34.65	1,313.20	↑ 1.63	↑ 20.91	888.25 '20/09/07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126.92	6,041.37	↑ 1.42	↑ 2.47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8,129.95	56,124.72	↑ 3.57	↑ 21.73	36,553.60 '20/09/24	58,129.95 '21/09/03
중국	상해종합	3,581.73	3,522.16	↑ 1.69	↑ 3.13	3,217.54 '20/09/28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14.30	2,439.69	↓ -1.04	↑ 3.65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9,291.71	8,957.81	↑ 3.73	↓ -13.47	8,742.44 '21/08/20	12,228.63 '21/02/17
	항셱	25,901.99	25,407.89	↑ 1.94	↓ -4.88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01.06	3,133.90	↑ 2.14	↑ 11.40	2,267.15 '20/10/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93	8.27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09	2.12	↓ -2.60	↓ -48.60	2.15 '21/08/16	2.80 '20/09/28
인도네시아	6.10	6.17	↓ -7.10	↑ 21.30	5.89 '20/12/30	6.98 '20/09/10
인도	6.16	6.26	↓ -9.80	↑ 29.20	5.82 '20/12/04	6.26 '21/08/27
중국	2.83	2.87	↓ -4.00	↓ -31.3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1.94	1.94	↑ 0.50	↑ 22.00	1.43 '20/09/24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93	8.2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64.00	22,780.00	↓ -0.07	↓ -1.45	22,764.00 '21/09/0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263.00	14,418.00	↓ -1.08	↑ 1.52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3.02	73.69	↓ -0.91	↓ -0.07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6	6.47	↓ -0.25	↓ -1.09	6.37 '21/05/28	6.85 '20/09/03
달러-원 (KRW)	1,156.91	1,169.08	↓ -1.04	↑ 6.48	1,081.81 '20/12/04	1,189.74 '20/09/04

주요 뉴스





중앙은행, 올해 말부터 FED가 테이퍼링 시작할 것에 대해 준비필요성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총재는 의회에서의 2022년 경제 관련 발언에서 올해말부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루피아화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이 올해 말쯤에는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과정은 테이퍼링으로 알려져 있는 유동성 공급 증가 금액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의회에서 발언하였음.
-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도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이 정책 변경 이전에 충분히 시장에 신호를 보면서 급하지 않게 정책 변경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큰 시장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음. 시장 상황과 시장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루피아화 환율도 충격을 받기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연준의 테이퍼링은 점진적으로 매수해오던 미국 채무증권들의 매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양적완화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함. 연준이 채권을 매수하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만큼 글로벌 달러의 물결에 힘입어 신흥국 통화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음. 연준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나간다면 그 자체로 경제활동을 통해 통화의 유통속도를 높이면서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반드시 금융시장 불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총재는 설명함.



중앙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포용금융 규제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기존의 2012년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법령을 강화한 거시건전 포용 금융비율(RPIM) 규정을 발표하여서 연도별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및 금융소외 집단들에 대한 자금 중개기능 확대 목표를 제시하였음. 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압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통 상업은행, 샤리아 상업은행, 샤리아 산업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31일자로 발효되는 중앙은행령(PBI) 제2021-23/13호 거시건전 포용 금융비율(Macroprudential Inclusive Financing Ratio, RPIM) 규정을 발표하였음. 이 규정은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국가 경제 회복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중앙은행 홍보담당 임원이 발표하였음. 그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 저소득개인(PBR) 및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집단들에 대한 금융지원 참여를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번 거시건전 포용 금융비율 규제(RPIM)에 따르면, 2022년에는 최소 20%를, 2023년에는 25%, 2024년에는 30%의 최소 포용금융집단 대상 비중을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여기에 더해서 RPIM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비중의 산출법, 그리고 평가 및 감독, 위반 시 제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규정의 발표는 균형적인 양적 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거시 경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 추진되었음. 금융기관들의 균형적인 양적 중개기능을 높여서 중소기업들이나 금융소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또한, 이번 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취급을 높여서 이들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기대하고 있음.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회에 실물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화 방안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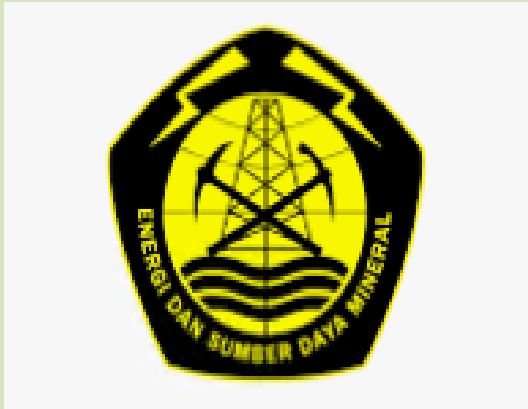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학회 세미나 자리에서 금융, 교육, 경제의 각 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 및 도입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 중앙은행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 학회(ISEI)가 농업, 중소기업 및 사람들의 경제 활동 등 실물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실물 경제 부문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려면 관련한 스타트업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함.
- ▶ 지불결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QR 표준(QRIS) 결제와, 금융 API, BI Fast 등과 같은 방안을 이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금융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입을 지속하고 있음. 이것이 기반이 되어 디지털 은행, 핀테크 및 전자상거래 등의 연관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총재는 설명하였음.
- ▶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콘텐츠와 강사, 그리고 교육자들의 이해를 높여서 더 폭넓고 다양한 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디지털 산업과 은행산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디지털 교육을 산업화하고 육성하는데 참여가 필요함.
- ▶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제학회의 연구자들이 경제, 금융, 교육 부문 등 각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입 방안들을 제안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에너지부, 인도네시아 전기차 도입과 관련한 해결 과제들을 제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핵심 국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향후 인도네시아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에너지 광물자원부에서는 온라인 브리핑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들을 발표하였음.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로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더불어 공공 전기차량 충전소(SOKLUs), 공공 전기차배터리 교환소(SPBKLUs) 등 전기차 생태계 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준비의 필요성 등을 꼽았음.
-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전기차와 배터리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기 차량용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220만대의 전기 차량들이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가 31,000개는 필요할 것이라고 에너지부에서는 추산하였음. 2021년 기준으로 572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지 166개만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함.
- 에너지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의 폭넓은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에 이와 관련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에너지 전환에 있어 석유와 가스의 전략적 가치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방향과 에너지 전환 방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 충족 및 화학 원료 도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생산 및 정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부 장관은 밝혔다. 그린, 재생에너지 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현실적 필요를 감안한 선택임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석유과 가스 산업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략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전세계의 에너지 전환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석유 및 가스가 필요하다는 관점임.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종합 전략의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의 증대라는 방안과 탄소 배출의 감축이라는 서로 상충된 두 개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음.
-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며, 다른 경제 활동에도 파급력이 큰 산업이라고 장관은 말하면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산업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해서 견조한 편이었다고 설명하였음.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세외 수입 측면에서 47.58조 루피아를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함.
- 에너지부 장관은 모든 석유 및 천연가스 협력 계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생산량이 석유 日 100만 배럴 상당, 천연가스 日 1200만 BCF 상당을 생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유 설비와 관련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전문가들, 관광부의 관광지 정책을 지지



❖ 요약 및 시사점

관광부는 핵심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서, 보건 지침 이행을 전제로 관광 재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관광객들도 이전과 달리 대규모 패키지 여행보다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접촉을 적게하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수용인원을 줄이고 있음

- 여행 전문가들은 관광부 장관이 취한 주요 관광 지역에 적용될 정책에 대해 지지하였음. 지방 정부와 지역 관광청과 협력으로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한에서 관광지역들의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음.
-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후에 실행될 관광 재개 일정 등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음. 백신 접종을 신청한 사람들은 관광산업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음
- 관광을 재개하더라도 보건 지침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새로운 코로나19 창궐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해 담담하고 용감하게 대응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관광 문화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관광객들이 보건 지침을 잘 지키는 지역을 찾아가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예전처럼 대규모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관광에서 개별적으로 관광을 하고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
- 관광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 해서 답답했던 사람들이 보복 여행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관광지역들을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1~2천명이 방문하던 곳은 50% 미만으로 수용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